

블랙 페티시 패션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

李珉慶·韓明淑*

상명대학교 가정교육과 강사, 상명대학교 가정교육과 교수*

A Study on the Formative Features of Black Fetish Fashion

Min-Gyung Lee and Myung-Sook Han*

Instructor, Dept. of Textiles and Clothing of Home Economics, Sangmyung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Textiles and Clothing of Home Economics, Sangmyung University*

目 次

Abstract	Ⅲ. 블랙 페티시 패션의 조형적 특징
I. 서 론	1. 형 태
Ⅱ. 블랙 페티시 패션의 의미	2. 소 재
1. 페티시즘의 정의와 개념 발달	Ⅳ. 결 론
2. 블랙 페티시 패션에 내재된 블랙의 의미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meaning and formative features of the black color reflected on the fetish fashion. This study was proceeded mainly by analyzing with references and plates of magazine.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 First, the sexual liberation and revolution have certainly led to a reassessment of sexual deviations, which changed the meaning of fetishism that has been only regarded as sexual perversion, so that it symbolized a new sexual perception and identification. As the result, black in fetish fashion was symbolized a new fetishism's definition which refused to distinguish male from female, and also reflected the meaning to express the second sex that wanted to express themselves. Second, the formative features of black color in fetish fashion have appeared tightness and bareness in form, and in material, glancing materials changed by the effect of light, and elasticity materials-leather, rubber, PVC, and laycra. By these features, black fetish fashion has drawn a higher attention on human body than the dress itself as a symbol about the psychology of erotic sensations and sexual images of the self appearing in black color.

I. 서론

서구 패션의 역사를 살펴보면 각기 다른 성의 의복과 관련된 성적 장식품들을 모방하고자 하는, 억압된 욕망으로부터 생성되는 긴장의 표현이 담겨져 있다. 특히 18세기까지는 의복에서 반대되는 성의 모방 관습은 여성보다 특권계급에 속하는 남성에게 의해서 보다 잘 표현되었다. 1950년대 이후, 양성적 색채의 패션이 간헐적으로 존재해 왔고,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유니섹스 스타일의 인기가 절정에 달하였다. 실제 패션 매체들이 “양성화(androgyne)”라고 언급한 경우가 1980년대 중반이었는데, 이것은 대부분 관념적인 성보다는 스트리트 패션(street fashion)으로부터 생성된 ‘펑크(punk)’의 영향을 받은 것이었으며(송선경, 1994, 10), 그것은 미국과 영국 등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하이 패션에도 크게 파급되었다. 펑크가 사회에 대한 좌절과 분노를 복식으로 표출한 데 반해, 1980년대 영국의 스트리트 패션의 또 하나인 퍼브스(pervs)는 개인적인 성적 취향을 패션으로 표현하는 페티시 스타일을 착용하였으며 그것은 페티시즘에 기반하였다.

19세기 말 정신분석학자들에 의해서 일종의 성도착(perversion) 또는 성적일탈(sexual deviance)의 병적 현상으로 간주되던 페티시즘은 오늘날 성(sex)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더불어 과거의 이원적인 성의 관점으로부터 탈피하여 일탈적인 성까지도 수용하며 인정하는 개념으로 변화되면서, 페티시즘은 대중문화를 통해서 점차 가시화되고, 그것과 관련된 대상, 이미지가 스타일 요소로서 대중패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페티시 패션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Vivienne Westwood, Jean Paul Gaultier, Azzedine Alaia와 같은 디자이너들에 의해 대중들에게 선보이고 있다.

페티시 패션이란 의복을 매개체로 하여 성도착적인 욕구를 표출하는 패션을 의미하는 것으로, 1983년 이후 주목받기 시작하여 아직은 생소한 용어이지만, 의복에 대한 페티시즘적인 관념에서 발생하였다. 구체적으로 페티시 패션은 레이스

장식의 콜렛, 스타킹, 가터, 스틸레토 힐 등 신체를 조이고 압박하는 의복품목과, 벨벳, 모피, 고무, PVC, 가죽, 플라스틱 등이 페티시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페티시 패션에 있어서 색채 상징은 특히 중요하며, 다양한 도발적 의미와 상징성을 표현하기 위해 검정색(black)과 적색(red)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이의정·양숙희, 1998, 207~208).

20세기에 접어들면서 블랙의 독특한 아름다움은 사람들에게 더욱 강력한 어필을 하였고, 블랙의 ‘성’의 상징은 1960년대 이후 패션에서 강하게 나타나는 특징이다. 그 이유는 1960년대 이후 패션은 젊은이들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것, 또한 여성들의 인식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 시대 이후의 패션의 성의 표현은 이전까지의 암시적이고 간접적인 에로티시즘의 표현이 아니라 직접적이고 도전적인 성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가장 극단적인 성의 표현인 페티시 패션에서의 블랙은 바로 극단적인 성의 상징이며 더 나아가 자신의 성이 아닌 제2의 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는 블랙이 자연에 반하는 인공의 색임이 강하게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블랙 페티시 패션을 중점적으로 고찰하여 첫째, 블랙 페티시 패션에 내재된 블랙 칼라의 의미를 고찰하고 둘째, 블랙 페티시 패션을 분석함으로써 이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블랙 페티시 패션의 조형성을 앞에서 분석한 블랙 칼라의 특성과 관련지어 고찰해 보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블랙 페티시 패션의 문헌 고찰을 위하여 「Dressed to Kill」, 「Fetish」, 「Street style」 등을 참고하여 분석하였고, 과정에서 사진자료는 블랙 페티시 패션으로 언급된 것만을 사용하였으며, 패션잡지로는 미국판 1983, 1987년 Vogue誌에 기재된 블랙 패션을 타이트로 한 사진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는데, 이는 Vogue誌는 대중적인 성격을 지녀서 현대의 패션 경향을 분석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II. 블랙 페티시 패션의 의미

1. 페티시즘의 정의와 개념 발달

사전적 의미에서 보면, 페티시즘은 애니미즘(animism)과 구별하여 인공물이나 자연물을 불문하고, 그것에 주력(呪力)이 있어 인간의 희망·욕구 등을 달성시켜 준다고 믿는 신념과 그에 기인하는 행동이며, 페티시즘의 역어는 영물숭배(靈物崇拜)이다. 주물을 나타내는 '페티시'라는 어원은 라틴어의 '인공적으로 만들어졌다'는 뜻의 '팍티티우스'에서 유래하였고, 직접적으로는 포르투갈어의 '페이티소(feitico : 주물·호부)'에서 파생된 것이다. 포르투갈에서는 성자(聖子)의 유물이나 호부(護符)·주물을 페이티소라고 불러 숭배하는 민간신앙이 있었는데, 서아프리카의 해안지역에서 현지인들이 나무·돌·이·손톱·발톱·나무조각·조개껍질 등을 머리털 등으로 휘감아 싸서 호부처럼 휴대하고 다니며 숭배하고 있는 것을 포르투갈 항해사들이 보고, 그것을 자기네의 민간신앙과 관련시켜, 마찬가지로 '페이티소'라고 부른 데에 기인하였고 이것이 영어의 페티시(fetish)로 변화했다(조연근, 1993, 191).

이와 같이 페티시즘은 처음에는 종교적이고 인류학적으로 논의되었다. 즉, 『Fetichism and Fetich Worshippers』와 같은 선교 논집들은 “나무 또는 진흙으로 만들어진 神像”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야만적인 종교를 의미하였고, 19세기에 페티시 용어는 바이성적으로 숭배되어지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졌다.

페티시라는 용어는 주술적인 매력과 또한 조각품, 인공물, 외모와 기호를 위한 노력을 의미하는 이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페티시즘에 대한 우리 자신의 성적 형태는 에로틱하고, 초자연적인 지배가 행해지는 주술적이며 종교적인 힘에 대한 원시적 현상들을 사용한다. 이러한 페티시한 행동은 자비와 권력에 다가가는 하나의 수단이 되며 그리고 종교적인 에로틱 의식에서 참가자들을 하나로 일치시키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이것은 기독교의 성찬식과는 달리, 분명히 눈으로 볼 수 있고 실제적인 신체 변형에 기본을 두고

있지만, 기독교인과 다른 신학자들이 경험한 내적 신체 변형에 필적한 것이다. 이러한 신체 변형의 성적인 동기는 정신적인 부분의 승화를 통하여 정화되어진다고 할 수 있다(Kunzle, 1982, 10~11).

그러나 19세기말에는 Krafft-Ebbing, Binet, Freud가 정신분석학에서 인체의 관능적인 힘에 필적하거나 능가하는 성적인 힘을 지닌 물체의 설명을 위하여 페티시즘이 사용되었고(Polhemus, 1992, 103). 페티시즘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분석은 19세기 후반에 처음으로 이루어졌으며, 성(sexuality)에 대한 이론적인 논의들이 새로운 “sexology”를 설명하기 위하여 의학과 심리학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Alfred Binet은 1887년 *Revue philosophique*로 출판된 그의 수필 『Le Fetichisme dans l'amour』에서 페티시즘을 현대 심리학적 의미로 처음 사용한 학자이다. 그때 에로틱 페티시즘(erotic fetishism)의 개념은 Richard von Krafft-Ebing이 새디즘(sadism) - marguis de sade의 이름을 따서 불임 - 과 마조키즘(masochism) - Venus in Furs 라는 고전적 페티쉬 소설의 저자인 Leopold Von Sacher-Masoch의 이름을 따서 불임 - 과 같은 새로운 용어를 만드는 것처럼, 성적 이탈(sexual diviations)을 연구함으로써 채택된 개념이었다(Steele, 1996, 5).

또한 독일의 저명한 성심리학자이고, 신경학자이며 정신과 교수인 Richard von Krafft-Ebing은 1886년에 처음 출판된 『Psychopathia Sexualis』에서 “장식, 장식품과 드레스”는 남성의 정상적인 성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상적인 “에로틱 페티시즘(erotic fetishism)”은 병적인 에로틱 페티시즘과는 의미적으로 다르다. 즉 그는 페티시즘을 “여성 신체의 특정한 부위와 또는 여성복장의 특정한 품목과 욕정의 결합체”로써 정의하였다. 병리학적 입장에서, 페티시 그 자체가 성욕의 독점적인 대상이 되며(인간과 결부시키기 보다는), 반면에 성교 대신에 페티시의 이상한 조각들은 성적인 목적이 된다. Krafft-Ebing에 의하면, 페티시로써 선택된 대상들은 여성 신체의 일부이거나(발, 머리칼, 피부) 혹은 신체적 특징들(질름

발이), 여성복의 품목들(일반적으로 드레스-페티시즘 또는 신발, 페티코트, 콜셋과 같은 특별한 의복의 페티시즘), 그리고 특별한 소재들(모피, 벨벳, 실크, 흰색의 풀먹인 린넨, 가죽)이라고 하였다(Steele, 1985, 31).

정신분석학자인 Freud는 페티시즘의 현상을 가장 일관성 있게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을 개발하였고, 그의 이론은 정신분석학에서 페티시즘을 남녀의 성적 주체성을 규정함에 있어서 핵심개념으로 사용되었다. 그는 먼저 페티시즘과 그리고 『Three Essays on the Theory of Sexuality (1905)』에서 “성적 대상에 대한 비적합한 대체물”을 논의하였다. 그는 개인은 어떤 특별한 마리색깔이나 의복이 성적인 목적을 줄 수 있다면 이러한 것을 소유함으로써 페티시한 상태를 가지게 되는 성적 대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페티시으로써 특별한 대상의 선택과 페티시즘의 원인에 관해서는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그에 의하면, 페티시란 “여성의 페니스의 대체물”인데, 이 때의 여성이란 어머니를 뜻하는 것이고, 남자아이가 어머니는 반드시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며 거세되었다고는 믿고 싶지 않은 것이다. 어머니가 페니스를 소유하지 않는다는 지각된 사실을 인정하기를 거부하면서, 대신에 그 아이는 어머니가 새로운 대상을 지니고 있다는 헛된 믿음을 가진다. 왜냐하면, 여성이 거세되었다면 그가 가지고 있는 페니스가 위협에 빠지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대신에 다른 대체물을 가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페티시는 페니스의 대체물이다”라는 결론을 내렸다(Steele, 1985, 32).

Freud는 여성이 페니스가 부재한 것에 대한 대체물로 선택되는 대상이 페니스의 모양과 유사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많으나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라고 말하며, 오히려 페티시는 고통스러운 어린 시절의 기억을 증지시키기 위해 기억단절 현상을 유발시키는 과정으로 표출된다는 것이다. 좀더 호기심 많은 소년은 여성의 다리 아랫부분을 보면서 성적인 환상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여성의 음모를 연상시키는 모피나 벨벳, 옷을 벗는 순간의 광경을 구체화시키는 속옷 조각들도 종종 페티시의 대상이 된다. 또 발은 원래 페니스

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으며, 구두를 페티시의 대상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어린 소년이 어머니의 스커트 안을 엿보고 싶은 관능적 충동을 환기시킨다고 보았다. 이것은 Freud의 리비도(Libido)의 발달단계중 제3단계인 남근기에 나타나게 되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Oedipus Complex)와 거세불안증(Castration Complex), 남근선망(Penis Envy)의 이론으로 설명되어지며, 남근기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심리기제들이 왜곡되거나 좌절되었을 경우에 그 강박관념은 잠재되었다가 성인이 되어서 도착적인 성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바로 페티시즘이라고 그는 주장하였다(Steele, 1996, 14~17).

이와 같이 페티시즘은 종교, 정신분석학, 심리학 등의 연구에서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고 사용되어 왔으며, 오늘날과 같이 다양한 문화적·사회적 요인과 결합되어서 페티시즘의 의미는 확장되어 사용되어지고 있다. 즉, Valerie Steele (1996)은 현대의 페티시즘은 오직 성(sexuality)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힘(power)과 인식(perception)에까지 이르는 의미로 확장되어 사용되어진다고 주장하였고, 또한 Elizabeth Wilson은 페티시즘은 더 이상 배타적으로 남성만의 전유물이 아니며, 여성도 페티시즘을 가질 수 있음이 심리학자들에 의해서 주장되고 있다고 하였다(Wilson, 1985, 6).

다시 말해서, Freud 이후 성에 대한 지식의 전파와 성 본능이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풍조가 만연하자, 에로틱한 이미지의 개방과 영상화가 유행되면서, 또한 성에 대한 표현은 궁극적인 인간의 도착적인 본능을 표현하는 것으로 인식되면서, 더 이상 개인의 성 도착이나 성적 하위문화로 여겨지지 않게 되면서, 도착적인 성을 인간의 또 다른 자연스러운 성의 표현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페티시즘의 정의와 개념의 발달을 인식할 수 있다.

2. 블랙 페티시 패션에 내재된 블랙의 의미

20세기 이후 패션은 크게 하이 패션(Arthodox Style)과 스트리트 패션(Street Style)으로 나누어 그 흐름을 구분할 수 있다. 하이 패션은 오트 쿠튀르(haute couture)와 프레타 포르테(pret-

a-porter)를 모두 포함하는 말로, 전문적인 의상 디자이너에 의해 만들어진 상류 사회의 의상을 말한다(조규화, 1995, 402, 648). 반면에, 스트리트 패션은 인종적, 민족적 또는 소수집단적 특성을 뛰어넘어 하위문화 집단의 독특한 정체성을 복식을 통해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주류 사회집단과 자신들을 구별하려는 반동형성에서 나타났다. 이러한 반동형성에는 충격적인 표현으로 관심을 끄는 자아의 절규(Ego-screaming, 예: Message T-shirt), 현실세계에서의 도피를 위한 맨디즘, 기성세대의 권위 정책에 대한 조롱(예: 핑크의 옷핀, 의도적인 추한 외모)이 속하며(유송옥 외, 1996, 278), 반항의 의미로 블랙이 애용되었으며, 스트리트 패션에서의 블랙은 비트 스타일, 모즈와 록커 스타일, 핑크 패션 그리고 페티시 패션에서 많이 나타났다. 스트리트 패션에서 나타내는 블랙은 미니멀리즘(Minimalism), 맨디즘(Dandyism), 허무주의(Nihilism), 금욕주의(Asceticism), 에로티시즘(Eroticism), 그리고 페티시즘(Fetishism) 등의 미의식을 내포하고 있는 20세기 후반의 대표적인 색채라고 할 수 있다.

블랙이 지닌 상징적 이미지는 시대에 따라 변화해 왔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블랙이 생명의 뜻을 지닌 색으로 사용되었는데 이는 어둠에서 새날이 밝아 오는 것으로부터 얻어진 정서적 반응의 결과였으며 그래서 블랙은 생명의 근원인 비옥한 땅을 의미하기도 하였다. 고대 이후 종교적 요인에 의해서 죽음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블랙은 16세기 영국 왕실에서 상중에 블랙 옷을 입기 시작한 것이 기원이 되어 현재까지 서양에서는 블랙이 상을 상징하고 슬픔을 표시하는 색채로 사용되고 있다(문혜정, 1997, 20~21).

17세기 네덜란드 복식의 영향으로 블랙은 귀족적인 화려함보다는 소박한 의미를 더 내포하였고, 보들레르의 맨디즘의 영향과 1926년 샤넬의 리틀 블랙 드레스(little black dress)의 발표는 여성복의 완전한 현대화를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1940년대 시작한 청소년 하위문화와 1960년대 '젊음의 폭발시대'로 성에 대한 자유로움으로 블랙은 분노, 공격, 반항, 성을 나타내는 색채로 이르게 되었다. 1960년대 성에 대한 도전은 '80년

대에 더욱 극단적이고 노골적으로 표면화되면서 청소년 하위문화에서는 페티시 패션이 등장하게 되었고, 이들은 모두 블랙을 즐겨 사용하면서 노출의 형태를 취하여 블랙과 노출된 피부와의 강한 대비를 이용하였다. 특히 페티시 패션과 연관된 색채 상징성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블랙은 오직 적색만이 경쟁하는 가장 인기있는 색상이다. 블랙은 유일하게 추상적이고, 순수하며, 그리고 신비스러운 강한 힘을 가진 색상이다(Steele, 1996, 190).

이처럼 블랙의 '성'의 상징은 1960년대 이후 패션에서 강하게 나타나는 특징이다. 그 이유는 1960년대 이후 패션은 젊은이들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것 또한 여성들의 인식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과 관련이 있다. 물론 패션과 성의 관계는 20세기만의 문제가 아니다. 에로틱 예술 연구의 선구자인 몽크는 "예술은 거의 모든 시대에 걸쳐 에로틱한 주제를 다루어 왔다. 왜냐하면 에로티시즘은 모든 인간 생활 근원에 뿌리를 박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한편, 블랙은 현대에 이르러 대량생산되면서 자연의 색조보다는 인공적 창조물들과 잘 어울리는 도시 환경의 색상이 되었고 전세계가 선호하는 색상이 되었다(Wilson, 1985, 189).

특히 1980년대의 페티시 패션은 주로 블랙으로 전개되었는데, 이는 물론 핑크의 영향도 있겠지만, 전통적 남성색인 블랙으로 여성의 신체를 압박할 때 배가되는 에로티시즘의 효과를 가지기 위한 이유이기도 하다. 특히 페티시 패션의 남성은 타고난 성을 거부하고 완전히 새로운 성을 추구하였다. 그들은 블랙의 타이트한 소재를 통하여 새로운 에로티시즘을 나타내었는데, 이것은 그들이 추구했던 새로운 성의 인간상과 부합하였다. 즉, 한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존중되는 것에서 양성의 특징을 모두 갖추면서도, 자신의 본질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과정에서 발생한 여성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에로티시즘이기도 하였다.

다시 말해서 현대의 블랙 페티시 패션은 기존의 합법화된 성(性) 문화에 대한 도전으로, 그리고 남성이나 여성으로 자신의 성역할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성적 취향에 따라 새롭게 부

여된 성의 의미를 표출하고자 하는 것으로(삼성 패션연구소, 1994, 8), 이러한 감정은 블랙을 통하여 발산되고 있다.

Ⅲ. 블랙 페티시 패션의 조형적 특징

앞서 블랙 페티시 패션에 내제된 블랙 칼라의 의미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블랙 페티시 패션의 조형적 특징을 분석하기 위하여 첫째, 형태면에서 신체에 꼭 맞게 재단되어 신체의 곡선을 그대로 드러내어 성적 충동을 자극시키는 밀착형과, 신체 부위 중 일부를 노출시키거나 특정한 성적 부위를 강조시킴으로써 흰색의 피부와 강한 대비를 강조하는 노출형으로 둘째, 소재면에서는 광택있는 소재와 신축성 있는 소재 등으로 구분하여 블랙 페티시 패션의 조형적 특징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1. 형태

1) 밀착형

색은 시각을 통하여 지각되므로 생리적 현상임과 동시에 감각을 통하여 하나의 감정을 일으키는 심리적 현상이다. 색채감정은 개성과 환경 그리고 조건에 따라 서로 다른 감정을 갖게 된다. 색채의 심리적 측면에서는 크게 색을 보고 즉각적이고 감각적으로 느끼는 일차적인 색채의 감정적 효과와 심리 작용으로 인해 생기는 이차적인 현상 즉, 연상, 색채기호, 상징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색의 감정적 효과에서 블랙은 가장 구심적인 운동을 하며 후퇴색이며 수축색이며, 이러한 수축하는 성질로 인하여 의복의 배색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날씬하게 보이고자 할 때 대표적으로 선택되는 색상이 블랙이다. 즉, 블랙은 무거운 느낌을 주는 색상이며 수축하는 성질로 인해 동일한 면적의 밝은 색상들 보다 작아 보이고, 다른 색상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무채색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색들 사이의 대립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등 물리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의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 색채이다. 이러한 블랙의 특성은 옷이 신체에 꼭 맞게 재단되어 신체의 곡선을

드러내는 스타일의 경우에 선호되는 색채이다(그림 1)(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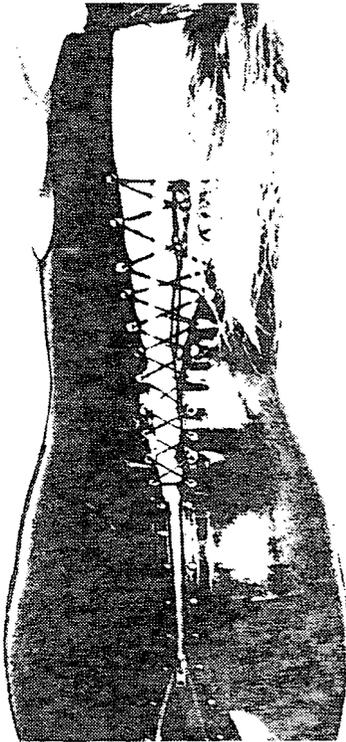
밀착된 형의 블랙 의상은 중세때부터 남성들이 착용한 블랙 호즈에서 비롯되었으며 20세기에 스커트 길이가 올라가면서 블랙 스타킹을 신었고, 1980년대의 가장 유행한 레깅스 스타일로 이어진다. 1980년대는 의복 자체보다는 신체를 아름답게 드러내기를 원했으며 이때 블랙은 가장 수축되는 색인 이유로 널리 유행되었고, 페티시 패션에서의 블랙은 극도로 압축된 신체 곡선을 우아하게 드러내는데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되었다. 이는 인체를 축소시켜주는 블랙과 밀착된 의복과의 강한 연관성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2) 노출된 형

대비는 유연함과 미묘함에서부터 적극적이고 강력함에 이르기까지의 범위를 지닌 흥미롭고 역동적인 원리이다. 서로 반대되는 사물들을 옆에



<그림 1> 소호의 Skin Two club 블랙 고무 페티시 패션 (Polhemus, *Street Style*, 19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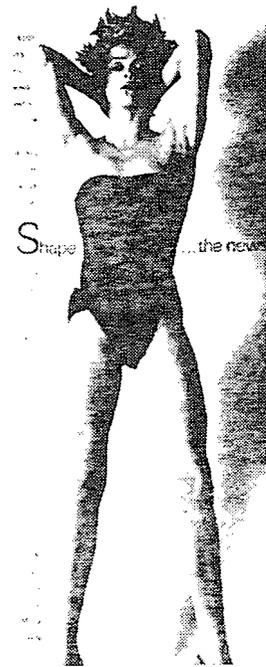
<그림 2> 블랙 콜셋 드레스
(White, Fashion 85, 1985)

놓고 보면, 이것들 사이의 차이들은 더욱 두드러지고 동시 대비의 착시 효과가 창출된다. 결과적으로 반대되는 관련성의 결과는 동시에 사용되는 한 요소의 사용 방식을 결정하고,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대비 자체가 많은 관심을 갖게 하므로 물리적으로 볼 때, 대비가 사용된 신체 부분을 강조하고 확대되어 보이게 한다. 또한 심리적으로 대비를 볼 때, 대비는 활동적이고 극적이며, 대비의 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 효과는 더 단호한 것이 된다. 대담한 대비는 섬세한 분위기를 압도하기는 하지만, 대비가 무시된 의복은 무미건조한, 맥빠진 느낌을 주게 된다. Rudolf Arnheim은 대비에 대한 우리의 욕구는 “완전함”을 추구하는 심리적 충동이라고 주장한다(이화연의 역, 1990, 321). 이것을 의복에 사용된 블랙과 인체의 피부의 색이 맞닿았을 때에 적용해 볼 수 있다. 즉 블랙 의상을 입을으로써 인체의 피부는

긴장감을 가지며 강하고 명확하게 된다. 따라서 의복에서 아무런 색채 배합없이 온통 블랙을 입었을 때 시선을 끄는 부위는 얼굴 및 노출된 신체 부위에 집중될 것이다. 이와 같은 대비의 특징은 의복에서 블랙이 노출되는 형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데, 관능적인 에로티시즘의 이미지를 느끼게 해주는 블랙 의상은 신체 부위 중 일부를 노출시키거나 옷이 신체에 꼭 맞게 재단되어 신체의 곡선을 드러내는 형태일 경우에 블랙과 흰색의 대조를 통하여 흰 피부를 더욱 강조하는 효과로 성적인 매력을 느끼게 한다(그림 3)(그림 4).

2. 소재

패티시 패션에서 “제2의 피부” 소재들은 또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인간의 피부는 가장 성욕을 자극하는 부분이다. 또한 그것은 신체의 바운더리를 표시하는 보호적인 지대로써 개념화되어질 수 있다. 만약 패티시스트들이 광택이 나



<그림 3> 노마카마리의 블랙 수영복
(Vogue, 1983)



〈그림 4〉 장 폴 고티에의 블랙수트
(Vogue, 1987)

고, 끈이나 레이스로 신체에 꼭 맞게 만들어진 의복을 선호한다면, 이것은 신체를 통찰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확실히, 페티시 소재들은 신체의 외적인 측면을 표현한다. 페티시 패션은 신체의 성적인 측면에 주의를 끄는 반면, 동시에 신체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도 한다(Steele, 1996, 193).

무생물의 페티시 대상은 종종 에이프런, 부츠, 드레스, 안경, 장갑, 손수건, 레인코트, 신발, 스타킹, 속옷, 그리고 유니폼과 같은 복식품목이 된다. 페티시 소재로는 또한 모피, 가죽, 실크, 또는 고무와 같은 것이 사용되며, 소재는 “딱딱한” 그리고 “부드러운” 두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가죽과 고무와 같은 소재로 만들어진 딱딱한 페티시 품목들은 매끄럽고, 광택이 나며 그리고 블랙의 색상으로 되어 있으며, “종종 신체에 꼭 맞게 재단된 의복이나 신발을 만든다. 부드러운 페티시 소재들은 주름장식이 있고, 폭신하며, 가는 털이 있는 모피와 관계리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된다.

어떤 소재들은 그것들의 상징적 연상뿐 아니라 촉각, 후각, 그리고 시각적인 특징들에 의해서 강력한 성적 호소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특별한 소재들의 선호는 PVC의 발명과 같은 기술적인 개발로 인하여 시간에 따라 변화되어왔다. 또한 ‘여성적인’ 것부터 ‘남성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19세기와 20세기 초에는, 기본적으로 여성의 의복과 관계있는 새틴과 모피와 같은 부드러운 소재가 선호되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에, 특히 가죽이나 고무와 같은 딱딱한 소재가 지배적인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절대적인 변화가 아니며, 자신의 에로틱한 감각과 성적인 이미지의 심리적인 암시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Steele, 1996, 143).

1980년대의 페티시 패션에서는 블랙의 가죽, 고무, PVC, 플라스틱, 라이크라 등을 많이 사용하였으며, 가죽을 제외한 대부분의 소재는 1970년대 중반에 등장한 핑크가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고무와 같은 소재는 건축과 인테리어의 하이테크 디자인에서 쓰이다가 인체에도 입혀지게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소재의 사용은 하이 패션에도 영감을 주었다(White, 1985, 117).

페티시 패션의 중요한 요소의 하나는 신체의 압박과 구속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블랙가죽은 훌륭한 페티시 소재의 하나로써 오늘날 선호되고 있으며, 그것은 레더섹스(leathersex)라는 용어으로써 “급진적인 섹스(radical sex)”의 국제적 “기호”가 되고 있다(그림 5)(그림 6). 가죽의 매력은 딱딱하고, 광택이 나는 질감, 독특한 냄새 그리고 움직일 때 생기는 소리와 관련이 있다. 상징적으로, 가죽은 고통, 권력, “동물적이고 약탈적인 본능”-남성적인 것을 나타낸다.

가죽의 객관적 성질은 사나이다움, 내구성, 유연성, 보호력이다. 광고에 나오는 가죽 또한 한 가죽의 천연성을 알리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동물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보면 육감적이기도 하다. 가죽은 애무의 대상이 아니고 손가락으로 어루만지는 것이다. 이로부터 여성다움과 대립하는 남성다움의 모든 성질을 찾아낼 수 있다. 가죽은 극히 성적이며, 우리들로 하여금 부친 내지 형들의 행동을 보게 하고 동성애적 혹은 새디즘적 현혹을 일으킨다.



<그림 5> 가죽 페티시 패션
(McDowell, *Dressed to Kill*, 1992)



<그림 6> 블랙 고무 페티시즘
(Polhemus, *Street Style*, 1994)

이상심리학(異狀心理學)은 이점에 주목하고 많은 피혁 애호가들의 숨겨진 성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성도착자들을 상대로 하는 피혁제품의 거래로 부를 축적하는 전문점도 있다. 채찍이나 부츠는 물론 여성들의 몸을 장식하는 데 쓰는 카글(넉넉한 터틀넥에 후드식으로 뒤집어 쓰는 코트)에 이르기까지 온갖 의류가 가죽으로 제조되고 있다(이연숙 역, 1993, 82).

1980년대 블랙 패션은 가죽의 두께감으로 인한 직선적이고 단순한 형태의 디자인에 사용되었으며, 또한 블랙 가죽의 광택소재에 가장 많은 스타일은 몸에 밀착되는 형이었다. 이는 빛의 반사에 의해서 신체의 볼륨감을 강조해 주기 때문으로, 이는 가죽이 온 몸을 밀착시킨 페티시 소재의 가장 선호되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블랙과 연관성이 높은 소재로 신축성 소재인 고무가 있다. 고무는 매끄럽고, 방수성과 탄력성 있는 소재로, 고무 나무의 수액을 화학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만들어진다. 가장 일반적인 고무 소재의 용도는 방수성이 중요시 여겨지는 레인코트와 모자를 만들기 위하여 사용되어왔다.

고무는 콘돔(condom)의 속어이며, 그리고 그것은 고무 슈트[페티시트들]의 착용은 콘돔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제시되어왔다. 그들이 고무 슈트를 입었을 때, 그들은 크고 생기있는 페니스를 느끼게 된다. 이것은 육체적으로 무력한 남성들에게 굉장한 흥분이 되었다(Bledsoe, 1964, 135~138).

고무 페티시트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고무로 된 옷을 입고, 고무마스크를 착용함으로써 자신을 페니스의 형태로 바꾸는데 이러한 행동은 페티시즘이란 '남성의 무의식적인 남근과시에 기초한 성도착'이라는 Freud의 결론을 증명하는 것이다(그림 7).

1960년대 런던에서 블랙의 가죽이나 PVC로 만든 싸구려 옷들에서 유행하였던 페티시 패션은 1960년대 이래로 가죽과 PVC가 패션의 흐름을 이끌었기 때문에 페티시 이미지는 약화되었다. 그러다 1970년대 Malcom McLaren이 Vivien Westwood가 'Sex'라는 의상점을 열면서 그것이 대중적 시선으로 가져오기까지는 음성적으로 그리고 은밀히 명맥을 유지해 나갔다(Polhemus,



<그림 7> Rubber gear, Kim West
(Steele, Fetish, 1996)



<그림 8> 블랙 PVC를 이용한 페티시 패션
(Fashion 85, 1972)

1994, 103). 그러나 1983년 런던의 소호에 'Skin 2'라는 클럽의 오프닝때 고무제품에 열광하는 자와 가죽과 난잡한 옷차림을 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이때부터 블랙 고무가 페티시 패션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고, 패션 전반에 PVC와 가죽못지 않게 영향을 미쳤다. PVC의 발명은 특히 그것이 "웨트 룩(wet look)"의 가능성을 만들어 주고, 레인코트의 열광자들에게 새로운 직조 방법을 더해 주었기 때문에 중요하였다(그림 8).

1987년의 Jean Paul Gaultier의 작품으로 바디 컨셔스 블랙(body-conscious black)이 그의 특유의 의의성을 지닌 소재의 혼용으로 나타나면서 신체에 꼭 맞는 바디 컨셔스 실루엣이 점차 패션의 주경향으로 되자, 페티시 패션에서 고무는 신체에 밀착되어질 수 있는 소재로 현대에 들어서 더욱 선호되면서 가죽과 함께 애용되고 있다.

IV. 결 론

본 연구는 블랙 페티시 패션에 내재된 블랙 갈라의 의미와 조형적 특징을 분석하기 위하여 페티시 패션과 관련된 문헌과 패션 전문 잡지를 중심으로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게 되었다.

블랙 페티시 패션에 내재된 블랙 갈라의 의미는 자연적으로 타고난 성을 부정하고 자신들이 선택한 성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은 심리상태의 반영으로써, 극단적인 성도착적 욕구를 표출하는 이미지의 페티시즘이 아니라 직접적이고 도전적인 성의 표현을 위한 새로운 의미의 페티시즘을 상징하기에 적합한 색채로써 인식되며 이러한 블랙의 특성은 페티시 패션의 조형적 특징에서 첫째, 형태면에서 신체에 꼭 맞게 재단되어 신체의 곡선을 그대로 드러내어 성적 충동을 자극시키는 밀착형과 신체 부위 중 일부를 노출시키거나 특정한 성적 부위를 강조시킴으로써 흰색의 피부나 근접색을 밝게 하여주는 블랙의 특성은 노출형 의상에서 두드러지게 표현되었으며 둘째, 소재면에서 블랙은 빛의 효과에 의해 변화가 크므로 광택있는 소재와 신체의 형태를 유지하고 감각적인 인식을 높일 수 있는 신축성 소재인 가죽, 고무,

PVC, 플라스틱 등이 페티시한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페티시 패션에 사용된 블랙 칼라의 의미는 기존의 합법화된 성문화에 대한 도전으로, 그리고 남성이나 여성으로 자신의 성 역할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성적 취향에 따라 새롭게 부여된 성의 의미를 표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러한 블랙의 의미는 페티시 패션의 조형적인 면에서 의상자체보다도 인체의 주목성을 높혀줄 수 있는 형태와 소재를 사용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강내희, 이성욱 편.(1995). 문화 분석의 몇가지 길들. 문화과학사, pp.171-172.
- 김춘일 역.(1996). 미술과 시지각. 미진사, P. 328.
- 김희남(1996). 현대 여성 하이패션에 나타난 스트리트 패션의 경향 연구.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p.10-11.
- 권은숙(1995). 색으로 승부하는 21세기. 웅진출판사, p.10.
- 문혜정(1997). 서양복식에 나타난 검정색의 의미지.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은주(1997). 색채조형의 기초. 미진사, p.106.
- 송선경(1994). 현대 복식에 표현된 추(醜)의 개념.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송옥 외(1996). 복식문화. 교문사, p.273.
- 이연숙 역(1993). 유행신라. 동국출판사, p.82.
- 이의정, 양숙희(1998). 페티시즘. 경춘사, pp. 207-208.
- 이화연 외 역(1990). 복식의 시각디자인. 경춘사, p321.
- 조규화(1995). 복식사전. 경춘사, p.402, 648.
- 조연근(1993). 학원세계대백과사전. 제30권. 학원출판공사, p.191.
- Baudrillard, Jean(1981). *For a Critique of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Sign*. St. Louis, Mo: Telos Press, p.91.
- Bledsoe, Robert(1964). *Male Sexual Deviations and Bizarre Practices*. Los Angeles: Sherborne, pp.135-138.
- Buhr, Manfred & Kosing, Alfred(1981). *철학 소사전*. 한국철학사상연구회 편역. 동녘, p. 118.
- Jones, Mable(1987). *Getting it on*. N.Y. :Abbeville Press, Kunzle, David.(1982). *Fashion and Fetishism*. New Jersey:Rowman and Littlefield. pp.10-12.
- McDowell, Colin(1992). *Dressed to Kill:Sex Power & Clothes*. London:Hutchinson.
- Polhemus, Ted(1994). *Street Style*. London: Thames & Hudson, p.103.
- Shelton, Anthony(1995). *The Chameleon Body: Power, Mutilation and Sexuality*. London: Lund Humphries, p.84.
- Steele, Valerie(1985). *Fashion and Eroticism*. New York:Oxford University Press.
- Steele, Valerie(1996). *Fetish*.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White, Emily(1985). *Fashion 85*. N.Y. :St.Martin's Press, p.117.
- Wilson, Elizabeth(1985). *Adorned in Dreams: Fashion and Modernity*. London: Virago press, p.6.
- 삼성 패션 연구소(1994). *Inspiration-Message From The Street*. Vogue, 1983, 1987.